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전략 포럼

발표자료

May , 2007

국내 농산물 시장은 공급 과잉의 지속 및 시장 개방 압력 증가로 인해 위기의 상황임

농산물 과잉 공급 현황
(단위: %, 양곡¹⁾ 수급 현황²⁾
기준)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한미 FTA
협상 결과

- 전체 농축산물의 90%에 대해 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합의
- 수입 민감도가 낮은 품목 중심으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단기적 피해 제한적
-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농산물과 무한 경쟁 예상

DDA
진행현황

- 쌀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서 시장 개방되었으나, 지속적인 쌀시장 개방 압력
-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추가적 인하 가능성 농후

주 1)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서류 및 기타

2) 총 양곡 공급량/총 양곡 수요량

자료: 농림부 (2006)

미국 등 선진국은 농산업의 효과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한국 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 Trend



국가별 농가 1인당 실질 농업 GDP¹⁾ 비교 (단위: USD, 200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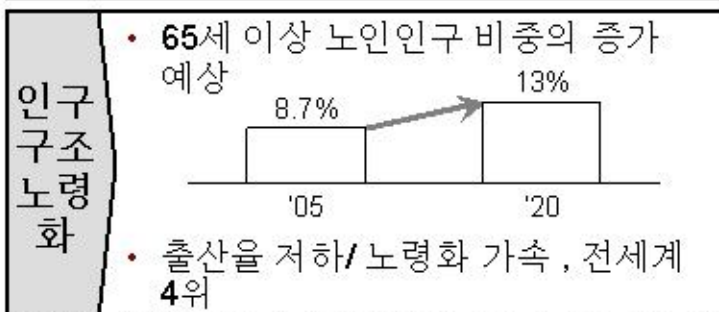
환경에 적합한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한 시기

주: 1) (총 농산업 GDP/총농가 인구)/물가지수

자료: FAO FAOSTAT(<http://faostat.fao.org>) 2007년 1월 기준, 농림부 주요 통계연보 2006, A.T.Kearney Analysis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 : 소비자 Mega Trend 분석

인구통계학적 속성 변화



- 건강기능성제품 수요 증가
 - 인삼시장, 8,500억 원 규모로 성장
- 편리성 중심의 식품 수요 증가
 - 외식시장 확대/햇반 등 일반 레토르트 식품 시장 증가
- 식품 포장재 중요성 증가
 - 안전 관련 식품포장 규제, 소비자 관심 증가로 위생적인 포장 중요성 인식 증대

소비자 니즈의 변화

식품 안전성 중시	- 광우병, 조류독감 등 수입 농식품 파동으로 인한 관련 산업 수요 감소 - 식품 가공 및 유통단계의 투명성에 대한 니즈 - 식품첨가물 위해성에 대한 관심 증대
감성/생활 편의 중시	- 레토르트 식품 및 조리 식품의 증가 - 소형포장제품 수요 증가 - 식품 포장 디자인 중시
건강 웰빙 지향	- 기능성 식품 니즈 증가 '05년 패스트푸드 시장은 신장 감소세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 : 선진국 사례 분석 결과



전라북도 건강·웰빙 중심으로 농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함

주요 국내외 환경 분석 결과의 시사점

국내 환경	FTA 및 DDA 등으로 인한 시장 개방 압력 증가
	편리성·기능성·안전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증가
	국내기업의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글로벌 환경	전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
	기능성 식품 등 성장하는 제품군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
	범용성 식품·농산물에서 글로벌 업체 영향력 확대 - 원가경쟁력과 채널경쟁력
	산재된 식품 관련 산업의 연계를 통한 집적 효과 극대화

전북 농산업 경쟁력 향상 방향성

고부가가치화 농업 변신
성장 잠재력 높은 건강·웰빙 식품 및
인프라에 집중



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집적 효과
극대화



글로벌 경쟁 역량을 갖춘 농식품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 농식품 클러스터 구축의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함

주요 고려 요건

전라북도 상황

글로벌 경쟁력 있는
농식품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

국내 국책·공공연구소의 최다입지로 R&D 기반 확보 및
지방 정부의 체계적 사전 준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향후 핵심시장인 중국에 대한 높은 지리적 접근성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투자 효과성 : 농식품 클러스터 투자로 지역
총 생산 20% 이상 개선 기대됨¹⁾

최근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과 시너지 효과 발생

첨단식품산업으로 Shift를 통해 전형적인 농도였던
전북이
한미 FTA 극복의 Success Story 창출

전북
농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국책
지원 필요

주 1) 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로 약 6조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됨

과제 1: **R&D** 중심의 선진 농식품 클러스터 구축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전라북도의 R&D 중심의 농식품 클러스터는 수출지향적이고 선도적인 R&D를 추구하는 Oresund 型 모델이 적합함

식품 클러스터 모델

주 Innovative Food Clusters



최근 농식품 R&D의 Mega Trend는 건강증진, 노령화 맞춤, 안전·편리 추구, 다기능성 및 기술간의 융합화로 분석됨

세계적인 식품관련 핵심기술 테마



R&D 기술의 주요 동향

학제간, 산업간을 융합하는 새로운 공동 연구 영역 추구

- 건강증진/ 질병 예방, 노령화 맞춤기술, 안전/ 편리기술 등의 개발 니즈 증가
 - 화장품-식품- 제약회사들간의 공동연구 증가

식품기술과 바이오·나노·정보 기술 등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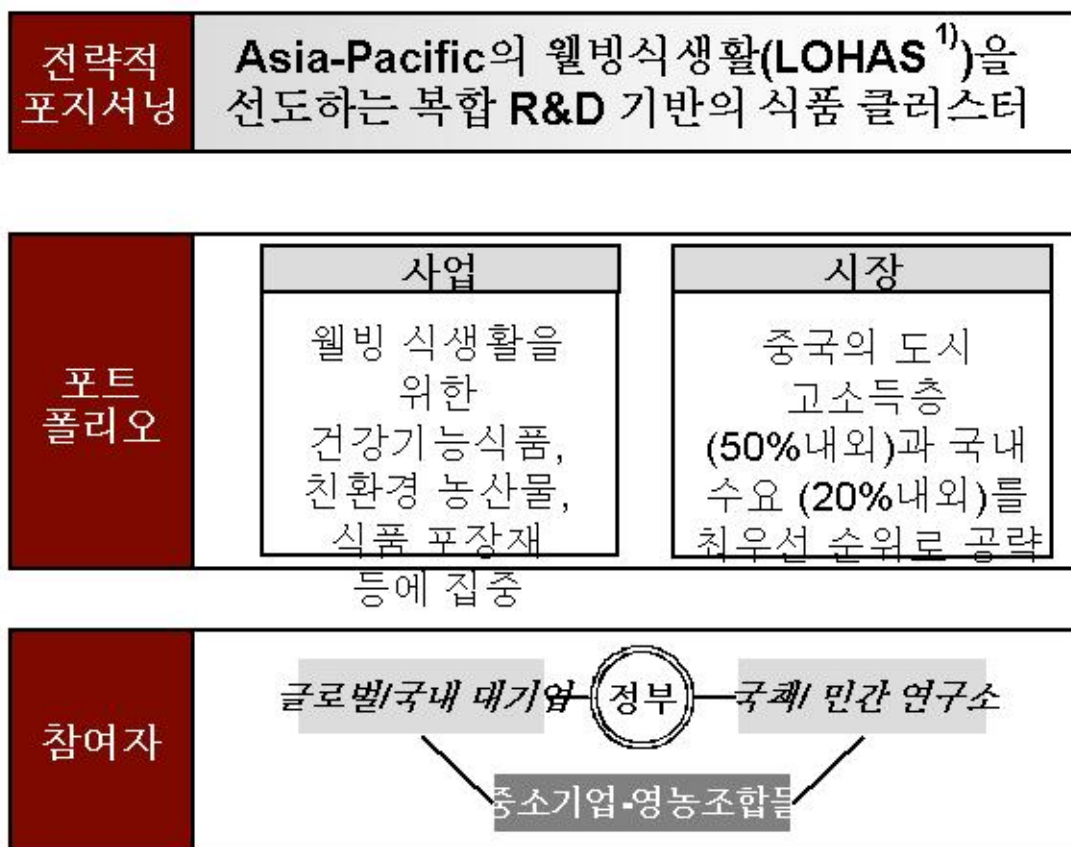
- 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술간 컨버전스화
 - 사례: 항암치료식품, 스마트 패키징 등

R&D의 Complexity 증가

- 단일 프로젝트의 기간 장기화
- 연관·선행 기술에 대한 의존도 상승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분석된 주요 타겟 영역을 중심으로 복합 R&D 기반의 농식품 클러스터를 지향할 것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방향



주요 타겟 영역



주 1) Lif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개인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웰빙), '로하스경제학' 등 저서에서 자세한 내용 기술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상용화/제품화가 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프로그램 구축할 것임

신기술의 상용화/제품화 방향



또한, 클러스터의 핵심 참여자인 국내 및 글로벌 기업, 국책·민간 연구소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와 협력 노력을 추진할 예정임

전라북도 식품 클러스터의 참여자





Oresund 클러스터와 Food Valley 는 농식품 산업의 고도화로 지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수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Oresund Cluster 사례



인당 GDP ('05)
(단위: USD)



Food Valley 사례



- Wageningen University와 글로벌 기업간의 공동 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
 - 공동연구 → 기술 구현 → 신규 사업 개발 → 식품 벤처기업 형성 및 집적 등의 선순환 형성

네덜란드 Wageningen 지역의 성장에 기여

Oresund Food Cluster는 스웨덴과 덴마크 양국에 분포된 대규모의 농식품 클러스터임

Oresund Food Cluster 개요



Lund 지역의 IDEON Science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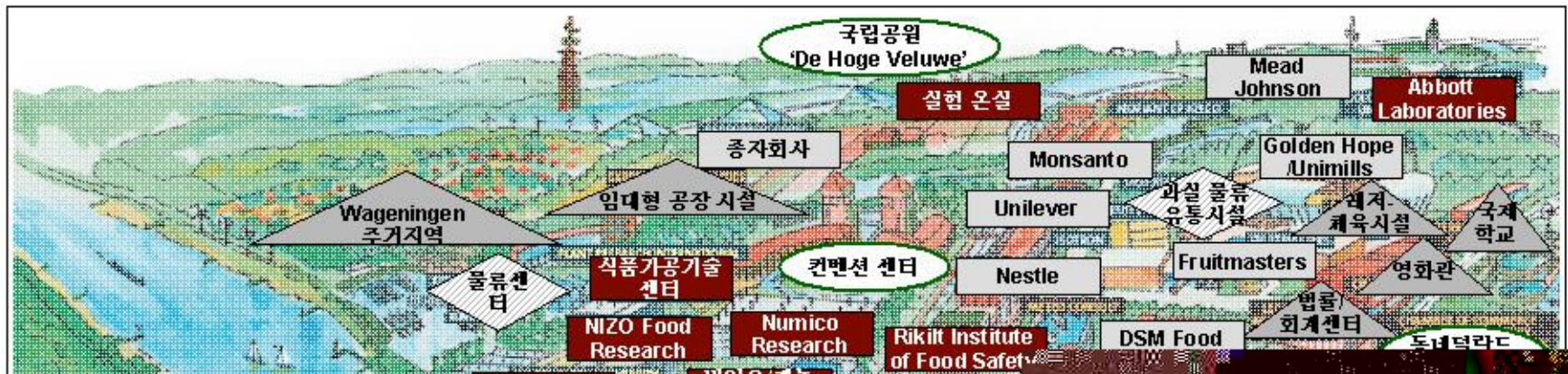




네덜란드 Food Valley는 Wageningen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 R&D 기관 및 식품 관련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농식품 클러스터임



네덜란드 Food Valley 조감도



성공적인 R&D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연구시설 외에 생산·제조 시설 및 공동 지원 시설 등이 집적된 식품 전문 단지를 구축할 것임

예시적

R&D 중심 식품 전문단지 개념도



R&D 중심 식품 전문단지 구축 방안



도내 5~6개 구체적 후보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임



전라북도 Food Science Valley 예시도





과제 2: 대규모 농식품 생산 가공 단지 조성

한미 FTA 에 따른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농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분산된 역량을 결집해야 함

클러스터 대형화의 효과



전국 농식품 클러스터 현황 ('06년 기준)



전국적으로 소규모 분산 투자되어
집적 효과 및 규모의 경제 부족

덴마크는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 역량을 집중하고, 대규모 클러스터로 변신하여 장기간 지속된 위기를 극복하였음

덴마크의 Strategy'92 전략

효과

~1989년
까지의
덴마크

- 덴마크 경제의 위기
 - 중소기업의 상공인 위주
 - 소규모의 영세 농가/조합
 - 무역적자와 기업의 경쟁력 상실
 - 글로벌 시장 진입 도태
 - 낮은 자산, 설비 가동률
 - 실직 증가/투자 이익률 하락

“유연성 있는 네트워크”
제도 도입

Strategy
'92 개요

- 영세 농가나 소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강화 지원
법안, 정책 추진



- 인력 및 자원의 공유에 따른 시너지 효과
 - 대량 생산의 가능으로 신시장 및 완제품 시장 진입
 - 좀 더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
 - 수출 증대, 국민소득 향상
- 특히 덴마크 농업의 경우,

- 분산되고 비조직화된 개별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21세기 농산물 수출 대국으로의 전환에 기여함
 - 1000 여 개의 개별 협동조합이 10개 미만으로 통합 단일화 됨
 - 대량 생산, 품질관리, 공동 해외 마케팅을 통한 통일된 선진 덴마크 산 농식품 브랜드 창출

예) Danish Crown

(돼지고기 중심의 세계 최대 육류수출 조합회사. 연 매출액 4조 5천억원) 및

Arla Food (유가공 조합 회사) 등

이탈리아 Emilia-Romagna 지방의 농식품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 : (Modena 와인 식초)

Emilia- Romagna 클러스터 현황

- 매출: USD 540억 (GDP의 3.2%)
- 고용: 100,000명 (식품관련산업)
- 1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존재
- 유명한 지역 농특산물 보유
 - 햄: Prosciutto (Parma)
 - 소세지: Zampone Salami (Modena)
 - 파스타: Tortelloni (Bologna)
 - 와인 식초: Balsamico (Modena)
 - 치즈: Parmigiano (Reggiano)



성공 요인

- 강력한 농가들의 네트워크 집합체인 농업 협동조합의 파트너십에 의해 공동 R&D, 생산/가공 품질 개선, 안전인증, 펀드조성을 통한 투자, 유통, 패키징, 마케팅
- 40여 개의 소규모 농식품 연구소 집적화를 통한 산·관 간 연구 부분 협력 (전체 연구소는 25%의 시간을 민간 프로젝트에 무조건 투입하도록 규정됨)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분사 활발

국내 친환경 농산물 판매 관련 핵심 이슈도 대규모 집적 생산 단지 구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함

친환경 농산물 판매 핵심 이슈 (단위 : %)



현재 상황



해결 방안

핵심 과제
파생 과제
주요 효과



대규모 농식품 생산단지 조성 추진 계획 사례 : → 친환경 농산물 사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

친환경 농산물 사업 추진 방향성
및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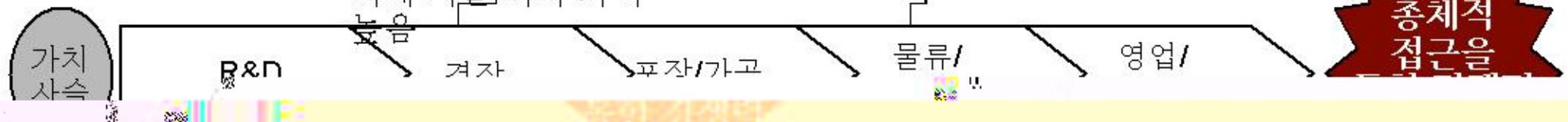
추진 방향
추진 배경

집적 야채 생산 단지 구축

- 신선도 이슈로 수입산과의 경쟁 제한적임 (ex. 엽채류 등)
- 타 농산물 대비 고객 최대 지불의사 가격 높음

Cold Chain 강화

- 야채 구매 시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저온 물류 시설 지원을 통한 장시간 상온 보관 가능
- 공동 물류 시설 구축 지원



또한, 기존의 농식품 단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대규모 광역 농식품 클러스터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기존의 농식품 단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개발 관련 해외 사례 (9개의 건강 기능성 식품 카테고리)



슈퍼과일



콜레스테롤 저하 식품&음료



칼로리 소비 음료



‘덜 유해한’ 식품



프로바이오틱



항산화제



에너지 증진 식품



새로운 기능성 물질
(코엔자임 Q10, 비도정 곡류 식품)



포만감 증진 식품

대규모 농식품 클러스터 구축 시, 사업 부문 상호간 순환 농업이 가능하여 자원 효율성의 증대 및 환경오염 감소가 가능함

농·축산 통합 계열화 사업의 순환농업 실행 개념도 (총체보리를 활용한 순환농업)



FTA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농·축산 분야 통합 지원과 함께 순환농법을 활용한 대규모 농·축산 통합 계열화 사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함

농식품 산업 육성 지원사업 내용



기대효과

- 국산 농식품 차별화 실현
 - 고부가가치 상품 출시 및 우수 품종 개발
 -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
 -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 국내 수요 및 수출 증대
- 경관자원 상품화 실현
- 자원효율성 극대화 및 환경오염 최소화
- 농업의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

**국내 농업의 FTA
대응역량 강화**

주요 핵심 추진 사업

1 R&D 중심의 식품클러스터 구축사업	2 고 부가가치 대규모 농식품 생산 가공 단지 조성	3 지원 사업
• 식품 미래 기술연구소 조성 지원 • 식품 기술의 상용화 지원 • 식품 투자 공동 펀드 조성 지원 • 국내외 우수 식품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지원 • 농식품 안전 인증 지원 • R&D 중심의 식품 전문단지 지원 • 해외 선진 식품 클러스터와의 공동연구 협력 지원	• 핵심 아이템 육성 지원 • 대규모 농식품 생산 가공단지 조성 지원 (H/W) • 농식품 생산 가공단지 조성 촉진 지원 (S/W) • 기존 농식품 단지 교류 협력 활성화 네트워크 지원 • 농식품 관련 공동활용화 시설 지원 • 1-2-3 차 복합 문화관광 시설 지원	• 산-관-학-연 농식품 클러스터 추진 체계 구축 지원 •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지원 • 공동 브랜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 농식품 수출 지원 • 국제 세미나 지원 • 호텔-컨벤션-생활기반 조성 지원 • 지역 기반 인프라 조성 지원 (공항, 철도, 도로, 항만)

식품에 관련된 선행 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식품 미래 기술 연구소 구축을 통해 식품 관련 원천 기술 및 응용 기술을 확보할 것임

연구영역



식품 미래 기술 연구소 운영체제



단기간 내에 World-Class 수준의 R&D 역량을 갖기 위해 해외 우수 식품 클러스터와의 공동연구 협력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됨

해외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활용 방안

국내 기업 수출 지원 관련 협력

- 현지 시장 고객 분석 정보 공유
- Buyer 및 유통 네트워크 구축 협업

농·식품 관련 R&D 협력

- 원천 기술 및 응용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조인트벤처 등을 통한 비즈니스 참여
- 연구 인력 교류

클러스터 운영 Know-how 공유

- 클러스터 운영 관리 시행착오 사례 공유

클러스터 내 제조 생산품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보장을 지원할 농식품 인증 지원 센터를 구축할 것임

예시적

식품 인증 지원 센터 추진
방향



기대 효과

**클러스터 내 제조
생산품에 대한 총괄적
이미지 제고**

- 인증 지원 센터에 대한 신뢰도를 영세 업체 제품에 전이 가능

안전 관련 기술력 향상

- 연구소 보유 기술의 실적용을 통한 기술력 향상

기존 인프라 활용도 증가

- 한국 방사선 연구원 등이 보유한 인프라의 사용 용도 확대

핵심 육성 아이템에 대한 지원 방식 (건강 기능 식품 사례)

예시적

지원 방식 (스테비아 사례)



해외사례: ProViva



- 스웨덴 Oresund 지역에서 환자들에게 유익한 박테리아 증식 등의 건강기능향상 물질
- 'Position Skane' 라는 지방정부가 공동 출자한 투자회사를 통해 총괄지원
- 'Probi AB'라는 중소기업에 의해 'ProViva' 라는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되어 유통은 Skane Dairies 라는 대기업을 통한 판매

기존 농식품 단지 교류 협력 활성화 네트워크 지원

기존 농식품 단지 교류 협력 활성화 지원



주요 협력 사업 추진 방향

- 공동 R&D**
 - 기술 라이선싱(Licensing) 협력
 - 공동연구 개발 과제 수행
- 시설의 공동 사용**
 - 시설/ 설비 공동 사용
 - 클러스터 간, 민간기업 및 연구소와의 연계 인프라 공유
- 판매/유통망 공유**
 - 국내외 판매/유통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잠재적 시장 확대 및 효율성 극대화
 - 클러스터 간 노하우 공유

산업 기반 인프라는 식품 클러스터 구축의 필수 요소로서, 글로벌 농식품 클러스터들은 기반 인프라에 대해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세계 식품 관련 클러스터 배후 기반 인프라 현황



식품 클러스터 구축 시 공항, 항만, 고속철도, 도로 등의 신설 혹은 재정비가 시급히 필요함

공항 인프라 확대 필요성 검토

Wageningen 주변의 공항



일본의 인구 및 지방공항의 국제공항화 시기

도/현	인구(명)	국제공항화 시기
홋카이도	247만	1973
아오모리현	119만	1981
이바키현	152만	1988
후쿠오카현	100만	1990
니이카타현	112만	1991
후쿠시마현	186만	1991
니가타현	122만	1992
후쿠시마현	178만	1992
후쿠시마현	148만	1995

물류 인프라 조성 방향

항만의 확장 혹은 신설 검토

- 중국 수출입 식품 전문 항만으로서 전북 주요 항만시설의 확장 혹은 신설이 모색되어야 함

호남고속철도의 신속한 구축

- 현재 사업비 총 10.5조 원을 들여서 2017년 까지 오송- 목포간을 완공할 계획임
- 고속철도 완전 개통 시 식품 클러스터에의 접근성 향상

도로의 신설과 재정비

- 식품 클러스터 내부의 원활한 이동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륙 횡단 도로망 및 클러스터 핵심지역 거점 중심의 도로 신설 및 재정비가 필요함



일본 지역

일본의 지역
니이카타
아키타
나가사키
센다이
히로시마
쿠마모토
오이타
가고사키
아오모리

자료: Global

전라북도 농식품 클러스터 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수출 지원 전담 기관 설립이 필요함

중점 수출 대상 지역

“세계 농식품 수입량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및 일본 시장을 중점적 타겟”



수출 전담 기관 개요

주요 미션

- 식품 클러스터 내 참여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
- 클러스터의 대외적 브랜드 이미지 향상

주요 역할

- 총괄 수출 관련 업무 지원
 - 수출 관련 전반적 동향 정보 수집
 - 현지 시장 조사
 - 국가별 수출 관련법 및 행정 절차 교육
- 영업 채널 개발 방법 제공 구축 지원

해외 사례

- 네덜란드 Food Valley
내 식품무역센터
- 덴마크/스웨덴
Oresund의 OFN 산하
수출 지원 부문



R&D 식품 클러스터 구축 및 고 부가가치 생산 가공단지 구축시, 2015년 최대 6조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잠정적

지역 경제 파급효과 (2015년 기준)
(단위: 조원)



- 클러스터 생산액
 - 30여 개의 글로벌 기업
 - 150여 개의 국내 기업
 - 20여 개의 연구소 유치
 - 500 만평의 대규모 농식품 생산 가공단지 구축
- 직접 파급효과
 - 정부, 기업의 투자
 - 기업 대상 공급 시장의 매출 발생
- 간접 파급효과
 - 고용인구의 소비 확대 (식당, 유통, 의료 등)

R&D 중심 식품클러스터 구축사업, 고 부가가치 생산 가공단지 구축사업, 지원사업 등에 5년간 약 1조 2천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함

잠정적

5년간 소요 예산 추정
(단위: 억 원)



사업 내용 (단위: 원)

R&D 중심 식품 클러스터 구축 사업	• 식품미래 기술 연구소 조성 지원	500억
	• 식품 기술의 상용화 지원	50억
	• 식품 투자 공동 펀드 조성 지원	100억
	• 국내외 우수 식품 기업 및 연구소 유치	130억
	• 농식품 안전 인증 지원	70억
대규모 농식품 생산/가공 단지 조성 사업	• R&D 중심의 식품전문단지 조성	2,600억
	• 선진 식품 클러스터와의 공동 협력 사업	500억
	• 대규모 농식품 생산단지 조성 지원	5,815억
	• 농식품 생산 가공단지 조성 촉진 지원	50억
	• 기존 농식품 단지 교류 협력 활성화 지원	50억
	• 농식품 관련 공동 활용화 시설 지원	80억
	• 1-2-3 차 복합 문화관광 시설 지원	350억
지원 사업	• 산-관-학-연 농식품 추진체계 구축 지원	122억
	•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지원	120억
	• 농식품 수출 지원	50억
	• 기타 (세미나, 홍보, 생활기반 인프라)	2,045억
	Total	2,337억